

# 목포고부설방송통신고 '만학 졸업식' 눈길

목포고부설방송통신고에서는 지난 15일 목포고 창통관 3층 시청각실에서 60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제42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조육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목포교육지원청 정대성 교육장 그리고 졸업생 가족 등이 참여해 만학도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날 60명의 졸업생들 중에는 도서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 병마와 싸우면서도 학업의 의지를 꺾지 않은 학생,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학교를 다녔던 학생 등 수많은

## 김대중 교육감 등 교육관계자 참석 졸업생 격려



난관을 이겨낸 다양한 사연들이 깃들여 있어 졸업장은 학생들 각자에게 더욱 뜻깊은 선물이 됐다. 정선해 졸업생은 편지를 통해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많은 졸업생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졸업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으로 생각go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

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장태환 교장은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자신의 꿈을 향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눈길을 모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졸업생이 얻은 것은 단순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뛰어넘어 인생의 성공을 향한 도전의 징표이자 이정표"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힘의 원천"이라고 격려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 포토뉴스



순천 서면 서구회, 새해맞이 떡국 나눔 순천시 서면 서구회는 지난 14일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관내 경로당에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사)한국상록회 장흥지회, 설명절 맞이 후원물품 기탁 (사)한국상록회 장흥지회는 16일 장흥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설맞이 저소득가정을 위해 백미 400kg, 과일 40박스(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회원들은 장흥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저소득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장흥=임민기 기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동행 봉사단,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배송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이루어진 '동행' 봉사단 28명은 지난 14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여수 관내 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아름다운 나눔 보따리 전달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0여 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전달된 보따리는 약 150개로 설 연휴를 앞둔 150여 가구의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제공

## 광산구 "10만 보 걷고, 기부도 하고"

29일까지 500명 추첨 상품권 지급...기부도 가능

광산구는 16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겨울철 저조한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고 기부 참여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에 들어가 광산구 공식 커뮤니티 '걷기 광산'에 가입 후, 해당 챌린지 화면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누적 걸음 수 10만 보가 챌린지 목표다. 29일까지 10만 보를 달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추첨된 대상자는 상품권을 직접 받거나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를 선택하면 투게더광산 나눔 문화재단에 참여자 이름으로 상품권이 전달되며, 향후 광산구 돌봄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겨울철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걷기 챌린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062-960-3822)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 광주시교육청, 2022년 시민제안사업 운영 보고회 개최

시민참여 보장 ·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 대상으로 '2022년 시민제안사업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시민제안사업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예산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제안사업은 시민과 함께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사업을 설계 ·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지역 사회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 보장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각화초를 비롯해

학강초, 효동초, 일곡중, 효광중, 송의과학고, 장덕중, 정광고가 참여했다.

학교당 1000만원 내 예산으로 ▲배워서 정(답게) 남(주자) ▲마을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센터와 지속가능한 삶의 교육 ▲라이트솔트! 섬김의 하모니 ▲평화의 문화를 키워가는 장덕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등의 주제로 다양한 시민제안사업을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면서 학교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각화초는 한밤의 영화제, 스케이트 타기, 프라모델 조립 등 다양한 아버지학교 행사와 학부모 교육과정 내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 등을 시민제안사업의 잘된 점으로 꼽았다.

/김도기 기자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연수'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이 지난 9~11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In-service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6일 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현재 학교 근무 중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올해 2월 퇴직자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연수는 실시간 원격화상으로 사흘 동안 진행됐다.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이 중 하루를 선택해 연수에 참여했다. 각 연수는 2시간에 걸쳐 학교급별 강의와 분반 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우수수업 사례 공모전'에서 금상(1위)을 수상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다양한 수업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 1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어 협력교사 간 협력 수업 및 방학 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한 학교를 선정하고, 소속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강사로 초빙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진 분반 토의 시간에는 각자 준비해 온 수업 또는 캠프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 순천시, 읍면동장과 함께하는 박람회장 현장 설명회

기본 콘셉트 · 요변화 설명으로 이해도 높여



순천시는 지난 14일 순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국 · 소장, 읍면동장, 신임 사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장과 총무팀장 등 80여명이 참석 예정됐으나 관심 있는 직원들까지 함께해 2023정원박람회의 주요 변화를 현장에서 설명함으로써 박람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했다.

오전 9시 오전그린광장에서 시작된 설명회는 그린아일랜드, 경관정원, 국가정원식물원, 가든스테이, 국가정원 밧길 등 주요 박람회장을 돌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담당부서에서는 현황판,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박람회장 조성 기본 콘셉트와 주요 변화를 소상히 설명했다.

특히, 현장 투어가 끝난 후에도 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현장 설명에서 부족했던 사항들을 정리하며 2023정원박람회 주요사항에 대해 확실히 이해토록 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광양제일교회, 설 명절 맞아 후원금 기탁

지역 저소득층 25가구에 전달 예정...훈훈한 명절



광양제일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광양읍사무소에서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후원금은 지난 12일(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기탁했다.

후원금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현금으로 기탁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2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재일 담임목사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광양제일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광양읍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후원금을 지원해 주신 광양제일교회에 감사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영광교육지원청,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2곳 찾아 격려 · 운영 어려움 경청



영광교육지원청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찾아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위로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문을 허용한 시설에 대해서 방문하고, 시설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영광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해 더욱 뜻깊은 방문이었다.

복지시설 관계자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주시는 교육장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김준곤 교육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 광주학생교육원, 화순자애원 위문 방문

설 명절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 위로 · 나눔 실천



광주학생교육원이 민중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16일 화순읍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 화순자애원을 위문 방문했다.

16일 광주학생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위문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인건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순자애원'은 지난 1950년 전광고아원을 양육하며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기 관이다.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아이들을 성년으로 키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 김형태 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도기 기자